

## ■ 업계동정 ■

### LG産電(株), 전동기 제어반 ASTA 인증 획득

LG産電(株)(代表 : 李鍾秀)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MCC(모델명 : Solution 2000)를 개발하고 ASTA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번에 LG산전이 개발한 Solution 2000은 기존 제품이 3000A, 50kA/1s 용량임에 반해 선진 제품 수준인 5000A, 80kA/1s 용량으로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증대시켰으며, 모터 제어 유닛(Unit) 크기를 소형화 하여 수납 수량을 2배 이상 증가시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그동안 대용량, 고차단 MCC 제품은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최근에는 선진 전력기기

회사가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고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는 단계에서 이번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의 개발은 300억원 가량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가격보다는 제품의 신뢰성을 증시하는 석유화학단지, 한전, 제철소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LG산전은 이번 신제품으로 국제 공인 기관인 ASTA로부터 국제인증 취득함은 물론 호주로부터 30억 가량의 MCC를 수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LG電線(株), 기가비트급 UTP 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 : 權煥久)이 기존의 구리로 만든 데이터케이블의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가비트(Giga bit)급 UTP 케이블 개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선다.

UTP 케이블은 LAN이나 ATM, 인텔리전

트빌딩의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구리(銅)선을 이용해 광케이블의 전송 속도를 가져 설치가 간편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선이 이번에 개발한 UTP 케이블은 지

금까지 개발된 UTP 케이블중 전송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Giga bit급(Category6, 기존 Car. 5급은 100Mbps급, 1Giga bps=1,024Mbps)으로 동화상(動畵像)이나 많은 양의 자료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어 차세대 데이터케이블로 각광 받고 있는 케이블이다.

특히 LG전선이 개발한 UTP 케이블은 어떤 장비와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장비의 호환성이 뛰어나 세계의 많은 장비 업체들이 채택을 서두르고 있다고 LG측은 밝혔다.

한편 동사의 데이터케이블팀은 “Cat. 5급 UTP 케이블의 경우 국산 제품의 개발이 늦어져 작년에는 외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가격도 국산 제품의 2배 이상 받는 등 그동안 외국 회사들의 횡포

가 심했다”고 밝히고 “이번에 LG전선이 Cat.6급 UTP 케이블을 먼저 개발하게 됨으로써 외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침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TP 케이블의 국제 시장가격을 국산 제품이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전선은 지난 달, 세계의 장비 공급 업체로부터 성능 및 호환성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이달부터 구미공장에서 양산, 국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LG전선은 또 Cat.5급 UTP 케이블이 급격히 Cat. 6급으로 대체되고 있어 이달 말부터 국내·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